

2019 새 설계

김산 무안군수

# “항공특화산업 적극 육성...서남권 중추도시 도약”



“군민과 함께 만드는 생동하는 행복 무안’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산 무안군수는 최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무안에 담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해 서남권 중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56만 명을 돌파했으며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공항 활주로 연장 예산이 확보되면서 공항 주변 역세권 개발 기대와 함께 그 어느 해보다 무안 발전에 대한 희망적인 미래가 펼쳐지고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남악신도시는 서남권 행정중심지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으며 오룡지구 개발과 함께 시 승격 기반 또한 갖춰 나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군수는 무안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항공특화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서남권 항공·물류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방침이다.

무안 특화 농공단지과 정제 3농공단지를 착실하게 추진해 기업 유치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역량 집중  
도·농 균형발전으로 삶의 질 향상  
찾아오는 문화관광도시 만들기 박차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잡힌 발전으로 모두가 잘사는 정주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안읍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생각이다.

남악신도시는 수변공원 생태하천 복원과 녹색 쉼터,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등 사계절 푸르른 친환경 명품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주민에게 소득을 주는 농수축산업도 육성한다. ‘농업인 월급제’를 본격 시행하고 농업용 방제 드론 공급과 농작업 대행 서비스 사업을 추진해 농업 경쟁력 향상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수산물 위판장 건립, 낙지목장 조성 및 갯벌정화 사업, 어촌뉴딜 사업 추진으로 어촌 경제 활성화 계획도 피력했다.

김 군수는 “찾아오는 문화 관광 도시 구축을 위해 칠산대교와 천사대교 개통과 연계해 무안이 관광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서남해안을 관

광 벨트화하고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안권과 내륙권을 하나로 묶는 관광산업 종합관리계획도 마련했다.

영광~무안 칠산대교와 무안~신안 천사대교의 개통에 따른 시너지효과와 더불어 229km의 해안 관광 일주도로와 연계 조성되는 노을길 등의 해양권과 내륙권의 회산 백련지와 지역의 전통 생활·문화역사자원을 하나로 엮어 새로운 관광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포부다.

여기에 전남도청 소재지 남악신도시는 사계절 녹색 도시로 조성하고, 오는 2021년 오룡지구 완공 시기에 맞춰, 인기증가에 따른 문화·체육 등 생활공간확충 등 도시기능을 강화해 무안시 승격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 군민의 행복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김 군수는 강조했다.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행복택시를 임산부까지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차량도 확충해 군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 군수는 군민에게 신뢰받는 소통 행정으로 생동하는 행복 무안을 열어가겠다고 역설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군민 아이디어 제안 등 다각

## 2019년도 주요 사업은

- ▲무안국제공항 항공특화산업단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 ▲도농복합도시 개발 모두가 잘사는 정주여건 조성
- ▲주민에게 소득 주는 농수축산업 육성
- ▲찾아오는 문화 관광 도시 구축
-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복지정책
- ▲군민에게 신뢰받는 소통 행정으로 생동하는 행복무안

적인 의견수렴 방안을 도입해 민생 현안을 찾아 발로 뛰는 개혁적이고 공격적인 소통 행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김산 무안군수는 “600여명의 공직자와 함께 ‘정령하지 않으면 퇴출된다’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이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창의와 개혁을 유도, 군민이 신뢰받는 군정으로 거듭나겠다”며 “주민 속원사업과 생활불편사항, 민생 현안을 찾아 발로 뛰는 개혁적 소통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 나주시 전지훈련 1번지 자리매김

육상 국가대표상비군 등 내달까지 95개 팀 1287명 유치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국 최고의 스포츠 시설 인프라를 갖춘 나주시가 각종 스포츠 종목 동계훈련선수단을 유치하며, 전지훈련지 1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육상 국가대표상비군을 포함해 2월 말까지 배구 10개 팀, 씨름 실업팀, 사격 국가대표상비군 및 21개 팀, 검도 중등부 25개 팀, 축구 실업팀, 펜싱 직장운동부 3개 팀, 사이클국가대표상비군 및 5개 팀, 야구 초·중등부 8개 팀 등 9개 종목 95개 팀 총 1287명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했다.

선수단은 2월 말까지 나주종합스포츠파크와 전남도 종합사격장, 사이클경기장, 실내체육관 등에서 본격적인 전지훈련과 스토브리그에 돌입한다.

이처럼 나주가 전지훈련지로 각광받는 이유는 영상강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도로와 흔치않은 야의 야구장을 비롯해 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 다

목적체육관 등이 종합스포츠파크 내 집중돼 있어 선수단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또 국제대회가 열리는 전남도 종합사격장, 사이클경기장 등 공공체육시설과 선수 합숙소, 웨이트 트레이닝 센터 등 각종 훈련시설이 두루 입지해 있다는 점도 메리트다. 여기에 포근한 날씨와 순박한 남도의 인심도 동계훈련 선수단 유치에 한 몫 하고 있다.

시는 이번 동계훈련선수단 유치를 통해 12억여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동계훈련선수단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위상을 제고하고,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선수단이 훈련 기간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 쾌적한 시설 관리는 물론 훈훈한 인심과 배려를 보여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 나주시 2개 농업 부서 왕곡면 배 테마파크로 이전

농업정책과·배원에유통과  
농기센터 통합 운영·집적화  
업무 효율 높여 농업인 불편 해소

나주시는 지난 11일 ‘농업정책과’, ‘배원예유통과’ 2개 농업부서를 왕곡면 소재 나주 배 테마파크(농업기술센터2청사)로 이전했다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배 테마파크에 이전한 농업정책과와 배 원예유통과는 9개팀 41명이 다.

시는 인구증가에 따른 공무원 정원과 기구 확대로 시청사 공간 협소 문제와 농업기술센터 1.2청사 분산 운영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농업부서 집적화 계획을 수립·추진해 왔다.

시는 2015년 농촌진흥청과, 배기술지원과가 배 테마파크로 이전 했으며, 민선 7기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먹거리계획과는 지난해 9월 농업인 교육관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이번 2개부서 이전으로 조류독감(AI) 등 긴급재난업무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청에 남은 축산과외에 전제 농업부서



나주시 농업정책과와 배원예유통과가 이전한 왕곡면 농업기술센터 2청사.

가 배 테마파크에 자리를 잡았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농업기술센터 분산 운영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은 물론, 기존 제2청사에서 근무해오던 직원들 간의 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사 이전에 따른 시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현수막 게시, 안내판 정비 등 홍보·안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 나주 주민참여형 꽃길 조성사업 올해부터 공모사업으로 전환

나주시가 ‘주민참여형 꽃길 조성사업’을 올해부터는 공모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나주시는 시민·사회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마을 가꾸기의 일환인 ‘시민참여형 꽃길 조성사업’ 참여 단체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읍·면·동 주관으로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공모를 통해 마을 주민 주도 사업으로 추진한다.

총 2억원이 투입되는 꽃길 조성사업은 도로변 등 유휴 공간에 꽃밭을 조성해 마을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 간 소통을 증진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공모 신청 자격은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사회단체 또는 모임(동아리)이어야 된다.

신청된 단체에는 1곳 당 ‘재료비·장비·임차비·활동비’ 등으로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참여 희망 단체는 나주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신청서와 단체소개서 등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사업대상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꽃길 조성 사업은 봄꽃 개화기에 맞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주)금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승빌딩

임대 문의 (062)382-8879

**광주사업지**

- 동 구 | 자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월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완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중리동
- 전남 목포시
- 전남 화순군
- 전남 담양군
- 전북 완주군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